

Style 조선일보

SPRING/
SUMMER
2024



BUCCELLATI,
The Prince
of Goldsmiths

In partnership with



BUCCELLATI

MILANO DAL 1919



Venice, the Serenissima and the jeweler

2024년 4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베니스 주데카에서 <금세공의 왕자: 클래식스의 재발견(The Prince of Goldsmiths: Rediscovering the Classics)> 전시회가 열린다. 진귀한 오브제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이 선사하는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통해 부첼라티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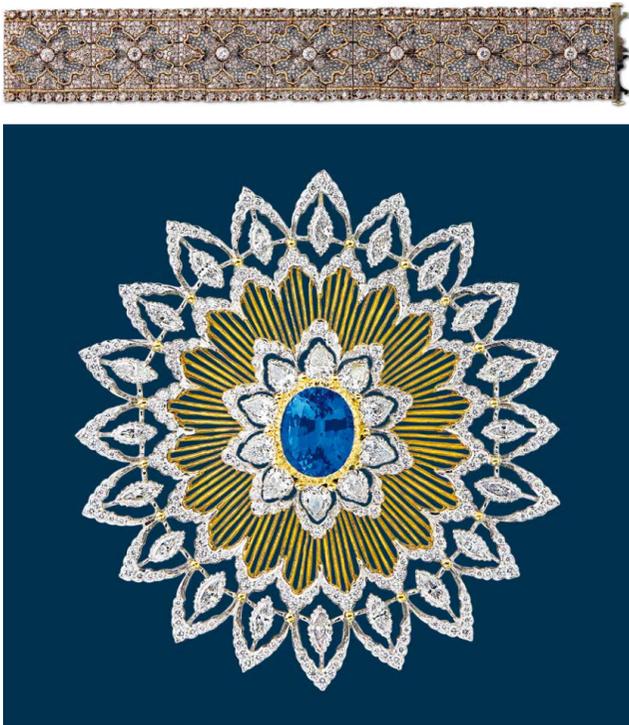
산타 마리아 델라 살루테(Santa Maria della Salute) 성당은 17세기부터, 산 세바스티아노(San Sebastiano) 교회는 16세기부터 베네치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알려진 산마르코 대성당(S. Mark's Basilica)은 10세기에 건축하기 시작해 14세기에 완성되었다. 성당 중첩의 역사는 19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많은 이들로부터 칭송받는 바로 그 광경에는 19세기 초반에 지은 왕궁(현재 코레르 박물관(Correr Museum) 위치)과 프루쿠라티에 베카리아(16세기 초), 프루쿠라티에 누오보(17세기 중반)가 위치한다. 이 건물들은 여러 세대의 사대를 거쳐 베네치아가 지닌 수많은 매력을 드러내왔는데, 아마도 전문 가이드만이 이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서부터 1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벽돌, 석조, 대리석뿐 아니라 코마네스크, 바로크 양식 등 여러 건축양식이 자라나는 방식대로 이들을 표현하고 있다. 부첼라티는 여러 면에서 가장 고귀한 공화국인 베네치아와 닮았다. 일관적인 디자인, 스타일의 통일성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이후 점차 풍부하게 표현되면서 여러 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지며 당대, 그리고 수많은 시대에 대해 고찰한다. 부첼라티의 명예 회장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드레아 부첼라티(Andrea Buccellati)는 "우리 모두는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 특징이 달리 나타나는 다양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1919년 부첼라티의 스타일을 정립한 제 할아버지 마리오 부첼라티(Mario Buccellati)는 아르 데코 사조의 영향을 받았죠. 1965년 할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버지 잔마리아 부첼라티(Gianmaria Buccellati)는 바로크에 가까운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제 작품은 어떤 면에서는 모던하면서도 미니멀합니다. 혹은 간결하고 기하학적이고 표현할 수도 있었죠. 제 딸 루크레치아 부첼라티(Lucrezia Buccellati)는 주얼리를 다양하게 연출하는 방법에 주목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온 스타일에 이 같은 진화의 역사가 내재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와 수년간 함께하면서 부첼라티의 정수를 이어받았다. "함께 살아 숨 쉬고 성장해 오면 부첼라티의 개성과 영속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창립 이래 1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뿌리를 찾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니까요." 그는 이어서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마리오는 인상주



의에 가까운 몇 개의 라인으로 자신의 의도와 예술적인 아이디어를 스케치에 담아냈다. 드로잉에는 명사되지 않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그가 장인들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을지 추측하게 만드는 부분. 모노중이를 사용한 잔마리아의 드로잉은 보다 세밀하다. 그의 표현력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려한 스타일로 발전했다. 그의 드로잉은 디테일이 살아 있고, 때로는 거의 기술 사본처럼 자세하다. 젤스톤의 각 면에 이르기까지 유성 연필을 사용한 덕에 주얼리의 양각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다. 각 작품에 대한 설명에는 작품에 깃든 아이디어와 소재를 엿볼 수 있으며, 아르데코와 서로 뒤얽힌 칼리그라피로 표현된 손 글씨에서는 그가 추구하는 전천후적인 미학의 극단과 디테일을 향한 세심함이 드러난다. 이들은 자라다 다른 작업 방식을 추구한다. 현대성을 향한 베네치아의 열망은 역사의 무게에 필적할 만하다. 전시회의 설계와 제작을 맡은 발라치 원더 스튜디오(Balich Wonder Studio)의 회장이자 베네치아 출신인 마르코 발리치(Marco Balich)는 이렇게 말한다. "베네치아는 절대적인 고전주의에 현대적인 비전을 결합합니다. 베니스 영화제(Mostra Film Festival)와 미술 및 건축 비엔날레(Biennale for Art and Architecture)가 좋은 예시입니다. 부첼라티의 경우에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가 묻어는 인그레팅 기법이라든지 피렌체나 베네치아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모티프, 질, 기타 장소에서 볼 수 있던 디자인에 있어 과거의 클래식한 요소를 현대 세계에 맞게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의 부제인 '클래식스의 재발견'은 부첼라티의 관점에서 매종의 미학적 세계와 특별한 장인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람객의 관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14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첼라티의 회장 겸 CEO로 활동한 잔마리아 부첼라티(Gianluca Brozzetti)는 "부첼라티가 10년 전 대비 큰 성장을 이루었고 어느 정도는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만족스러운 인지도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방문한 분들이 1백 년이 넘는 역사와 제품을 둘러보면서 부첼라티를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어두컴컴한 구석 전시회가 아니라 마치 아름다운 아트 북을 넘겨보는 듯한 몰입감 넘치는 여정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반면 마르코 발리치는 클래식적 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주얼리와 그 속에 숨겨진



영감의 관계를 탐험하는 이번 전시회 곳곳에서 클래식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건축, 회화, 조각까지 예술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니까요." 관람객은 디지털 이미지와 복제품을 살펴 보면서 부첼라티의 테이빙(레이저 컷팅) 보티첼리(Botticelli)의 봄(Primavera)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적인 부분은 보석 세공인의 작품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처럼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의 콘셉트 그 자체에 담겨 있다. 전시회 제작을 감독한 발라치 원더 스튜디오 매니징 디렉터 클라우디오 스트라지온(Claudio Stragion)은 "관람객은 영상 작품을 따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라졌다가 첫 전시 공간의 투명한 스크린에 등장하고, 이후로 존재감이 커지면서 관람객은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마리오 부첼라티가 제작한 박스 제품인 캄페트, 베네치아 케이스, 시가렛 케이스를 가상으로 열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수 있죠. 배경에도 영상 작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에서는 투사를 통해 완전히 몰입감 넘치는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관람객은 이곳 예술의 사원에서 잔존 기법, 부첼라티 작품, 역사적 문서, 수작업을 기념하는 작품에 꼭 빠져들게 되죠"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국민이라면, 특히 베네치아 사람들은 기념비적 열대 단논치오(Gabriele D'Annunzio)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제목인 '금세공의 왕자'는 그가 33년 후배인 마리오 부첼라티에게 붙인 별명을 일컫는다. 마리오의 첫 번째 고객이었다는 그는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이들을 위해 박스, 케이스, 주얼리 같은 오브제를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의미를 옹호해왔던 것이다. 그의 디자인 소투어는 창시했다. 여러 여성에게 그가 선물했던 이 소투어는 머지않아 부첼라티의 전통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1922년과 1936년 사이 두 사람은 83통의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 편지는 후에 출간됐다. 편지의 시작과 끝



- 1919 말라노에 최초의 부첼라티 부티크 오픈
- 1922 마리오 부첼라티와 기념비적 단논치오의 만남
- 1965 이탈리아를 벗어나 뉴욕에 최초의 해외 부티크 오픈
- 1978 잔마리아가 아버지 마리오 부첼라티의 자리를 이어받아 부첼라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제품 책임자로 부임
- 1979 안드레아가 부첼라티에 합류해 아버지 잔마리아와 함께 근무
- 2000 워싱턴 D.C. 스미스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에서 부첼라티 전시회 <골드, 실버, 젤스톤의 미학(Art in Gold, Silver and Gems)> 개최
- 2008 모스크바 크렘린 박물관(Moscow Kremlin Museum)에서 부첼라티 전시회 <사물을 초월한 예술(Antesera tempo)> 개최
- 2008 부첼라티가문의 4세대 루크레치아가 증조할아버지가 창립한 부첼라티 하우스에 합류
- 2013 안드레아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아 부첼라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겸 제품 책임자로 부임
- 2024 베네치아에서 부첼라티 전시회 <금세공의 왕자: 클래식스의 재발견(The Prince of Goldsmiths: Rediscovering the Classics)> 개최



을 맺는 인사말이 점점 편해져가는 것을 보면 이들의 우정이 점차 발전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왕자이자 시인이자 제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단논치오는 주문 등록부에 사령관(commendant)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부첼라티는 단논치오를 위해 그의 문장이 장식된 레드 및 블루 컬러의 특별한 케이스를 제작했으며, 특별 주문에는 사파이어와 루비를 사용해 중층이 겹쳐져 조명을 확장하기도 했다. 전시회가 개최되는 베네치아 주데카섬은 도심에서는 살짝 먼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수상 버스를 타고 대운하를 건너, 수많은 관람객에게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고요의 순간을 선사하는 이곳에서 진정한 경험이 시작된다.

왼쪽 페이지 © Aplomb Photo Studio, MARIO BUCCELLATI 1950년 부첼라티 히스토리컬 컬렉션의 나비 브로치, 화이트 골드, 바로크 진주, 루비, 다이아몬드 이펙트. © Aplomb Photo Studio, ANDREA ET LUCREZIA BUCCELLATI 2023년 유니카 컬렉션,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이펙트 나비 브로치. © Aplomb Photo Studio, ANDREA BUCCELLATI 1995년 원본 그림을 기반으로 2023년 제작한 유니카(Unica) 컬렉션 나비 브로치,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진주, 다이아몬드 이펙트. © Catherine Harbour 간주로 장식한 카테릴 펜던트 이어링과 투르말린을 세팅한 카테릴 링을 착용하고 있는 로열 루비 나사(Luce Nonha), 2017년 12월호 <FW> 매거진.

오른쪽 페이지 © Alvaro Beasud Cortes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의 하와이 컬렉션 주얼리를 착용하고 있는 모델 찰리 위즈(Charlie Weiss). © Aplomb Photo Studio, MARIO BUCCELLATI 1920년대 부첼라티 히스토리컬 컬렉션으로 실버,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 이펙트인 레이스 브레이슬릿. © Aplomb Photo Studio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2017년 유니카 펜던트 브로치. © Aplomb Photo Studio, MARIO BUCCELLATI 1920년대 부첼라티 히스토리컬 컬렉션으로 빨강과 실크 소재의 이브닝 백, 버클을 투르말린과 실버 및 옐로 골드로 장식했다.

The history of Italian Fami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부첼라티는 가문 전체를 관통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계승하고 재해석하면서 창립자 마리오의 유산에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무려 1백5년간 4대에 걸쳐 명맥을 이어온 부첼라티 가문, 그 오랜 이야기.



2014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첼라티의 회장 겸 CEO로 활동한 자인루카 브로제티는 말한다. "위대한 럭셔리 브랜드들의 이야기는 늘 대규모 가족 경영에서 시작됩니다. 명인한 창립자가 자인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전승되는 이야기죠. 브랜드가 성장하고, 체계를 갖추고, 다른 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그렇게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첼라티 가문의 이야기는 마리오부터 시작된다. 마리오의 어머니가 정착한 밀라노에서 그는 보석 세공인 벨트라미 에 베스나티(Beltrami e Besnati)를 통해 기술을 배웠다. 전문적인 기술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스타일 감각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에 해당하는 법이다. 그의 스타일은 고대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여기에 오랜 세월 에 걸쳐 이탈리아를 유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요소를 기렸다. 그때까지는 아직 가족 사업이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유산이라는 개념은 이미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종이 위에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레이스, 그리고 교회와 궁전의 건축적 모티프를 재해석했고, 수많은 디테일에서 영감을 받아 니크리 스톤, 브리지, 아이싱을 디자인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주얼리가 아닌 스케치였다.

1919년 그가 부티크를 오픈했을 당시, 원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충분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무엇을 파는 곳인가?"라고 물어보면 그는 "꿈을 팝니다"라고 답했다. 첫 주문로 착수금을 받은 그는 최초의 작품을 제작한다. 부첼라티의 주요 고객이자 사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로서 장군이자, 왕자, 그리고 궁중에 불꽃 튀긴 브라질에 단눈치오는 당시 가장 박식한 심미주의자였던 왕족과 추기경에게 마리오의 주얼리를 향한 자신의 열정을 설명했다. 이후 부첼라티는 로마, 피렌체로 뿔뿔이 나갔고, 루카(Luca), 로렌초(Lorenzo), 페데리코(Federico), 자인마리아(Gianmaria), 조르지오(Giorgio)를 맞이하며 부첼라티 가문 또한 더욱 번성했다. 마리오의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랐다. 1946년, 자인마리아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의 건설성이 되어 사다리의 가장 아래에서 일하게 되었다. 양력한 보석 세공인이었던 마리오는 활약한 이들을 훨씬 영하게 대했으며, 자인마리아는 10년이 지나서야 첫 번째 작품을 제작하게 된다.

부첼라티 가문의 일원은 자마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940년대 후반 미국에서 공부한 루카는 1951년 뉴욕 부티크를 오픈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고, 이후 팝업 스토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여름휴가객의 고객을 가늠해 밤 바치에 부티크를 오픈했다. 이후 페데리코는 밀라노에 위치한 부첼라티의 본사와는 별개로 로마에 지사를 오픈했으며, 현재는 하나로 통합되었다. 역사에 관심을 보였던 로렌초는 브랜드 유산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깨달았고, 산책해 있던 마리오와 자인마리아의 아이디어가 살린 드로잉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는 서로 풍성한 영감을 주는 사신을 교환했던 아버지 자인마리아와 기브라르데 단눈치오의 인연을 연구했던 사람이다. 그다음으로 3세대가 등장한다. 자인마리아의 아들이자 현재 부첼라티의 명예 회장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 중인 안드레아는 자신감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의

주얼리를 만들어야요. 열여섯 살 때는 오후마다 아틀리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열아홉 살 때는 대학교를 떠나서 켈스톤 부서에 합류했죠." 그와 남매 관계이자 카루니에 이선 디렉터를 맡은 마리아 크리스티나(Maria Cristina)는 한 번도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이미 가족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녀는 나이가 차자마자 부첼라티에 합류했다. 이들의 시선이자 로렌초의 아들인 루카도 같은 소명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형상 아버지의 뒤를 따르고 싶었어요. 정말 강한 본능이고, 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던 3배 더 열심히 일해야 했죠"라고 말한다. 현재 그는 VIP 영입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부첼라티 가문의 일원이던 누구든지 환영이었지만, 모두가 특권 없이 가장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동일한 경로를 거쳐야 했다. 안드레아의 딸인 루크레치아는 현재 4세부터 대표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녀는 미국 내 부첼라티 영매사이자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로서 2008년 최초로 올 실버 컬렉션에 선보였다. 부첼라티 가문에 있어 부첼라티라는 성은 1백여 년간 변함없이 이어져온 스타일을 의미하며, 이름은 세대를 거듭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자인루카 브로제티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럭셔리 부문에서는 브랜드 DNA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첼라티에서는 열정을 따라 DNA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부첼라티라는 이름과 최초의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주얼리 하나, 오브제 하나, 이미지 하나도 부첼라티의 디자인, 감도, 승인을 거쳐야 세상의 빛을 만날 수 있죠. 우리는 부첼라티라는 기업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부첼라티라는 가문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을 받으려면 본사에 방문하는 부첼라티 직원은 바로 이런 가문을 느끼게 되죠. 저희는 모두에게 부첼라티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작 페이지 © Buccellati Archive 실버, 화이트 골드, 블루 및 핑크 사파이어 소재의 이브닝 케이스. 1964년 부첼라티 히스토릭 컬렉션 © Aplomb Photo Studio, MARIO BUCCELLATI 1961년, 베르셀리 근처의 콘다(Londra) 하우스. 왼쪽부터, 페데리코, 조르지오, 마리아, 루카, 마리오, 로렌초, 자인마리아 부첼라티.

오른쪽 페이지 © Buccellati Archive / Maria Lukas 1970년대의 자인마리아 부첼라티. © Aplomb Photo Studio, MARIO BUCCELLATI 1920년대 부첼라티 히스토릭 컬렉션으로 실버, 옐로 및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레이스 브레이슬릿 © Raul Ventura 마리아 크리스티나, 루카, 안드레아, 루크레치아 부첼라티. © Aplomb Photo Studio, MARIO BUCCELLATI 1920년대 개인 소장품 옐로 및 화이트 골드, 진주, 다이아몬드 타이머. © Buccellati Archive 1960년대 작업실에서의 마리오 부첼라티. © Aplomb Photo Studio, MARIO BUCCELLATI 1940년대 개인 소장품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실버 및 옐로 골드 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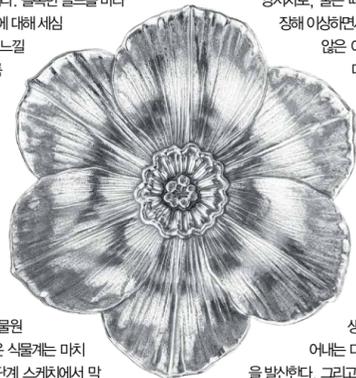


The Art of Imitating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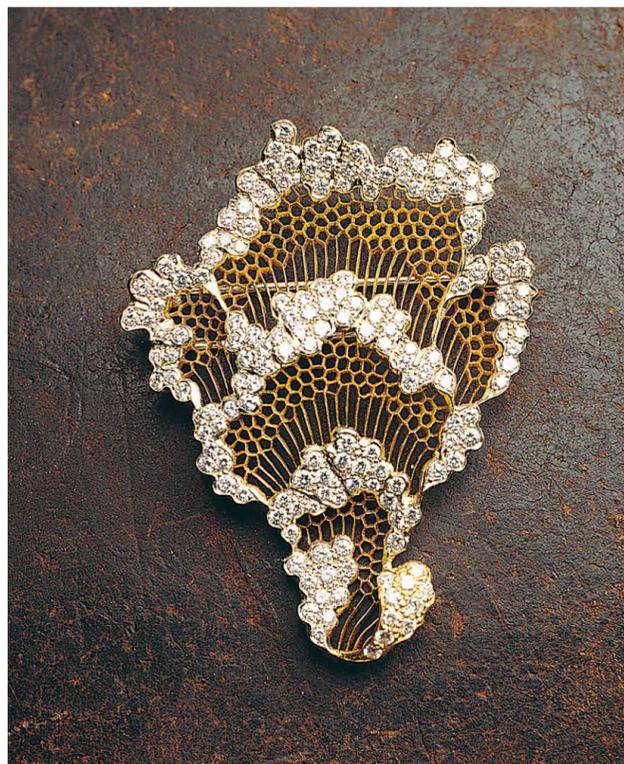
다양한 동식물부터 그에 대한 호기심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부첼라티에 항상 무한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해왔다.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한 디자인부터 꿈에서 본 듯한 광경을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까지, 부첼라티의 주얼리는 우리 주변을 에워싼 아름다움을 오롯이 담아낸다.



자연은 살펴보고, 이것이 너의 미래일 것이니(Scruta la natura, è il tuo future)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의 산문은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보편적인 아이디어다. 주얼리 제작 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인 자연을 모방하는 디자인은 부첼라티의 시그니처다. 기존의 커팅과 세팅한 요소를 주얼리로 구현하기 위해 마리오가 나뭇잎을 알아서 세심하게 관찰했자는 상상만 할 뿐이다. 볼록한 골드를 바라보노라면 비랍의 움직임에 대해 세심하게 연구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고, 오목재의 볼록감이 이토록 생동감 넘치는 감각을 부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카네이션, 베고니아, 작약, 제라늄, 양귀비, 아몬드, 수선화, 클로버, 포도 잎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레퍼토리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진귀한 식물원을 이루게 된다. 이 같은 식물계는 마치 르네상스 가문의 준비 단계 스케치에서 막 끌어낸 것처럼 사실적으로 구현했다. 주얼리 및 실버웨어 같은 오목재는 자연 모형을 본뜬 것처럼 보이며,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은 그 순간에 멈춰 있는 듯하다. 다양한 테이بل웨어 또한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물론 언더그라운드 및 실버웨어 같은 전통적인 장식 작품도 존재하는 허지만, 요리를 구현한 작품 자체가 함께 축제에 참여하면서 눈과 혀를 모두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세공의 향연을 펼쳐 보인다. 카라틴 스타피스는 과일과 가득 찬 바구니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손잡이 역할을 하



는 당골은 실버를 직조해 완성된다. 그 속에 담긴 배와 식류를 보면 무심코 한입 베어 물고 싶어질 정도다. 소라, 문어, 랍스터, 가리비를 보면 마치 해양생물의 미묘한 연회에 참석하려 바다에서 상륙한 듯한 느낌을 준다. 자연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화려함을 재현하고 호기심 어린 아이디어를 시각적인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네르리스에 정교하게 배열된 양식 진주와는 천양지차로, 골은 때때로 일탈적인 형태를 등장해 이상하면서도 기이한 매력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한다. 이는 바로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며 일그러진 모양으로 잘 알려진 바로크 진주다. 아이들이 구름의 윤곽을 묘사하면서 놀듯, 부첼라티는 이 같은 보물을 크게 확대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의 형태를 강조하고, 스스로는 결코 생각지 못했던 매력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구성 속에서 존재감을 발산한다. 그리고 이는 잠자리, 팬다, 토끼, 독수리, 뱀으로 거듭나거나 온통 나비로만 이루어진 컬렉션의 실마리가 되었다. 1938년 첫 번째 나비 컬렉션이 탄생한 이후로 부첼라티의 동물 라인업에는 3백 마리 이상의 나비가 합류한 만큼, 부첼라티는 주얼리 분야의 나비 연구가와 같다. "자연은 살펴보고, 이것이 너의 미래일 것이니"라는 격언은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아이디어지만, 4세대의 디자이너를 거쳐 부첼라티의 철학에도 굳건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현대 세계와 관련성이 가장 큰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왼쪽 페이지 © Aplomb Photo Studio 과일과 잎을 표현한 스텐링 실버 소재 오픈형 스타피스, 네이처 컬렉션. © Raoul Ventura Il Giardino di Buccellati 피라미트 투르말린, 치보라이트, 가넷,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몰로렐 세트를 착용한 루크레치아 부첼라티(Lucrezia Buccellati). © Aplomb Photo Studio 스텐링 실버로 이루어진 나르시수스(Narcissus) 플라워 볼, 네이처 컬렉션. © Aplomb Photo Studio, GIANMARIA BUCCELLATI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진주를 세팅한 옐로 골드 및 화이트 골드 소재의 1993년 부첼라티 히스토리 컬렉션 나비 브로치. © Aplomb Photo Studio, ANDREA BUCCELLATI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진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2021년 울베리칼리(Umbelcali) 컬렉션 네르리스.

오른쪽 페이지 © Aplomb Photo Studio 실버 소재의 해양 컬렉션 랍스터 오브제. © Isabelle Bonjean 에티널(Eternal) 컬렉션의 링 컷, 핑클 브레이슬릿을 착용한 모델. 2017년 봄, 시티즌 K 인터내셔널(Citizen K International) 사진. © Frank Honat Studio 부첼라티 피스들과 르네상스 스타일로 촬영한 컵 오브 플레저(Cup of Pleasure). © Renato Zucchin 다양한 세공을 거쳐 완성한 브로치. © Luc Braquet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피스, 플랫헤어 및 서빙 플레이트, 아트 데리테이블(Art de la Table), 2023년 4월, (펠라스 메가저니(Palace Scope)).

Playing with Scale

부첼라티는 디자인을 이루는 디테일, 특정한 인그레이빙의 형상화, 장식 모티브, 대칭을 지향하는 스타일을 통해 르네상스의 건축물에 변함없이 경의를 표한다.

최초의 르네상스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Filippo Brunelleschi)는 크기에 변화를 주어 피렌체의 도시 풍경을 점차 변화시켰고, 그의 영향력은 유럽 전역으로 뻗어 나갔다. 당시 그는 현대적 의미의 화가, 조각가, 수학자, 이론가, 공학자를 아우르는 지식인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1404년에 금속공예의 대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고딕 양식에서 벗어나 비율과 장식을 재정의하는 고대의 질서에 다시 주목하고, 이를 당시 시대와 기술 진보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했다. 그는 금속 세공에서 석조로 무대를 옮겨 금 세공을 무한히 커지는 규모로 구성한 듯한 건축물을 완성했다. 부첼라티의 전반적인 미학은 한 예술사에서 다음 예술로 이어지는 변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스펀에서 골드와 실버로 이어지는 주얼리는 사람과의 친밀한 기념물로서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같다. 여기에 브레이슬릿과 네크리스에 텍스타일의 유연함을 부여하거나 타이아라와 링에 경이로운 만큼 투명함을 더해주는 오픈워크 덕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담긴 구조가 탄생할 수 있었다. 조화라는 개념을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티브를 연속적으로 재현하고 대칭적으로 결합하다 보면 눈은 다양한 크기를 바라보다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반복적인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구성하도록 하는 리드미컬한 배열은 3분의 1 크기로 중간중간 포인트를 주거나 전체적인 사이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끝 없이 상호 연결의 효과를 자아낸다. 교회와 궁전의 장식 디테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르네상스 시기의 이상적인 건축적 요소는 주얼리 제작에 있어 필수적인 모티브로 활약한다. 피렌체 대성당(Santa Maria del Fiore) 혹은 베네치아의 두칼레 궁전(Doge's Palace)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핵심적인 형태 중에는 베네치아 대운하에 자리 잡은 카도르(Ca' d'Oro)의 외관 구조를 구성하는 꽃잎 모양의 코트르 포일이 포함된다. 이는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부첼라티의 디자인에서도 엿보인다. 혼동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부첼라티의 퐁(Tulle) 기법 또한 섬세한 벌집 형태의 스타일도 있지만, 로즈 윈드에서 영감을 얻은 방식형 벌집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부첼라티의 디자인은 15세기 이후 보물 르네상스의 유산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선언을 담고 있다. 부첼라티의 전문 분야인 다양한 박스 형태의 창조를 또한 시가렛, 코즈메틱 케이스 및 단순한 장식을 가리지 않고 이탈리아의 위대한 도시에 자리 잡은 유명한 건축 걸작을 만나서 인그레이빙으로 장식했다. 크기를 자유롭게로 활용해 금세공과 건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예술을 조화시키는 또 하나의 작품인 셈이다.



왼쪽 페이지 © Aglomb Photo Studio 다양한 색상의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에펠레(Etelle) 링, 왼쪽부터 차레레로, 라미지, 롬비(Rombi), 퐁(Tulle) 컬렉션. © Aglomb Photo Studio, ANDREA BUCCELLATI 옐로 및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펜던트 브로치, 2021년 개인 소장품. © Francesco Bonino / Alamy Stock Photo 부첼라티의 시그니처 모티브 중 하나인 고딕 요소가 특징인 베네치아 카도르(Ca' d'Oro)의 장면. © Aglomb Photo Studio, GIANMARA BUCCELLATI 2001년 부첼라티 하우스의 컬렉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전경이 새겨진 실버와 옐로 골드 소재의 상자. © Aglomb Photo Studio, ANDREA BUCCELLATI 핑크 골드, 화이트 골드, 베릴,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2020년 작터탑 컬렉션 펜던트 이어링.

오른쪽 페이지 © Frank Benevald / Getty Images 다양한 부첼라티의 창조물에 영감을 준 피렌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이치형 입구와 로즈 윈드. © Renato Zucchin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아이코나 컬렉션의 에투알레(Étoile) 네크리스, 이어링, 에펠레(Etelle) 링. © Oliver Samson 2016년 ADISQ 갤러리에서 가수 셀린 디온(Céline Dion)이 루비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목걸이와 반지를 착용하고 있다. © Vincent Alvarez 이라미리노로 장식한 펜던트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네크리스를 착용한 모델 이라나 로지크(Iryna Rozhky), 2007년 <순>(Soon) 메거진에 게재된 사진.



BUCCELLATI

MILANO DAL 1919

